【一】 第一千九百六十二號 【大正九年十一月十五日 第三種郵便物認可】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金曜日】 大正十五年三月五日 第二版

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朝鮮人商業의繁榮策
本社主催懸賞投票의意義

一

現代의經濟組織에잇서서의商業의位置와 밋그社會的意義또는歷史的運命에關하야는 이제論評코저함이아니다 다만現下社會에잇서서 一重要한經濟生活의機能인商業에關하야 그의振興策의一端으로서 吾人의朝鮮人商業界의 어느方策을 論評코저합니다 그리하야萬一이라도衰頹또는敗滅하여가려는朝鮮人의商業界를爲하야多少의도음이잇기를期코저하는바이다 最後的인理想을爲하야 突進함은吾人의當爲인것은 勿論이어니와 곳곳에서마주친現實의諸問題는 다시吾人으로 각각應分의努力을향을要하는바이다 本社에서試하는바 商店의諸條件에關한懸賞投票가튼것은 오로지이必要에因함이다

二

商業의發展은 勿論그人民의經濟力의總和에依하야決定되는것이오 枝葉의問題로서左右할수는업는바이다 農業 水産業 鑛産 林業 밋各種製造工業等産業의發展이 供給밋需要의力을增進하야 未來의繁昌을오게함으로 商業發展의自然한結果를나타나게할것은勿論이어니와 그의當業者들의 人格的 倫理的努力에依하야 그의改善밋向上의實績을 들어낼수잇는것도否認하지못할바이다 商店의看板을改善함으로부터 店頭裝飾과 商品陳列의藝術的 商略的改善 店員의親切한程度等은同一한經濟的環境下에 잇서서도매우그成敗의分岐를달리하게되는것이다

三

資金이넉넉지못한點 信用機關에依한融通의길이如意치못한點 그背後에잇는物質供給의資源이貧弱한點 一般人民의購買力이薄弱한點가튼것은 모다朝鮮人商業이 萎靡不振하는決定的理由이다 그러나京城의商業界로보더라도前記한看板店頭裝飾 商品의陳列方式 店員의親切與否等이日本人의그것보다도朝鮮人側에遜色이잇든것은一般的으로標準하야 否認키어려운바이요 더욱히朝鮮人顧客으로하야금 낫닉고길갓가운 北村의白衣人의市街를떠나서 멀리진고개의商店으로가게하는것은다만經濟的利害의 打算으로因함이아니라 이에列擧한諸條件에因함이만흔바이다 이는朝鮮人商業者諸氏의 매우留意할點이다

四

客臘의中央繁榮會의歲暮大賣出의計劃이잇슨以後 京城朝鮮人의商業界는 적이面目을새로하하는바잇섯다 客月本社에서看板第一의懸賞投票가잇슨以後京城의商業界는 다시看板의改善등이 明白히눈에뜨우는바잇섯고 現下第二次의投票를進行함에際하야 店頭의裝飾은바야흐로改善中에잇슴을 目擊하게되는바이며 이는비록枝葉의問題인者이나 오히려朝鮮人商界를爲하야 欣賀할바이어니와 다만懸賞投票가道警察當局의干涉에依하야 一個月一回에制限되게된것은 投票者를爲하야적이興味를減殺할 憂慮가잇스나 그投票의實績밋實効에잇서서는아모差遲가업슬일이다 吾人은朝鮮人商業界의諸君이 이方面에一層努力하야 써商業의繁榮을圖하는것이다 近者京城以外 南北各地에서또한朝鮮人商界의繁榮을爲하야努力하는바잇스니 매우可한者이다

米國、五年後에 二千臺飛行機完成
陸軍航空隊發表

(華盛頓三日發) 米國陸軍省은今後五個年間陸軍航空計劃을發表하엿는데此에依하면五個年後에는二千二百臺의飛行機와千六百五十名의飛行將校와機關士其他操縱員一萬五千人으로完全한空軍을成할豫定이다又陸軍省은右計劃完成의時에는布哇及巴奈馬運河地帶에早速히飛行隊의增加를行하야完全한戰時設備를하려고한다 그러나右布哇巴奈馬運河地帶에幾何의航空隊를配置할가는機密에屬함으로陸軍省은此에對하야詳細히發表하기를써리나그러나比律賓에關하여는現在의平時定員以上에增加할計劃을세우지안음은即同島가何時에던지獨立할터임으로同島防禦設備를經濟的立場으로考慮할必要가잇슴이라더라

獨逸航空制限緩和
獨逸航空會議에서

(나우엔三日發) 『벨사유』條約에依한獨逸에對하야設하여잇는航空機製限撤廢에關한獨、佛航空會議는目下開會中이나其結果獨逸은商業用飛行機를爆擊機에改造할點을制限한것뿐이오數量과形式에는何等의制限이업시商業用飛行機를建造할수잇도록되리라더라

佛首相 理事國增加를 下院에서演述

(나우웬三日發) 佛蘭西『뿌리안』首相은 再次下院에서聯盟常任理事國數는當然增加할것이며從하야佛蘭西는近近常任理事國의一員으로『뽀―란드』를迎할수가잇다고述하엿더라

王省長에게 留任勸告

(奉天四日發) 錦州에在한張學良氏는王省長辭職의報를接하고昨夜八時錦州에서王永江氏와會見後極力其留任을勸諭하엿다 一方奉天省工學會代表者도錦州에急行하야慰留하엿는바中國側에서는王氏는無條件으로留任하리라고觀測하더라

衆議院本會議 各派醜態摘發로 ◇……一大修羅場化

(東京電) 四日衆議院本會議는各派의醜態指摘에緊張味를帶하고午後一時二十五分에開議하엿는데劈頭로中野正剛君은 小川平吉、小泉策太郞、秋田淸、鳩山一郞四君을查問會에附할것이라는緊急動議를提出하고語等은三百萬圓事件에關하야田中政友會總裁를查問會에附하고십흐나衆議院議員이안임으로此에關連한右四君을查問會에附하려함이라하매政友會側은喧騷妨害하기를마지안코中野君은尙히犬養君이黨員을引率하고身을賣한事와山梨大將의議員買收件과田中大將이現役의身分으로서政治에關與하고又乾新兵衛와金錢의授受를協議한事外에田中大將自身이張作霖에게武器를賣함을論詰하매政友側의喧騷은甚하엿슴에不拘하고所信을述하야降壇한後志賀和多利旣(政)은從히根據업는事를述하야政友會總裁를曉罵함에不過하다고反駁하엿더라

田中總裁의 三百萬圓事件으로 ◇…黨員의辯明이紛紜

議院法改正 委員會開催

平壤勞農聯合會 新組織制實行 勞働聯盟으로變更 二日委會의諸決議

創立十五週紀念

利原少年聯盟 突然解散 發起文을押收

家畜에關한 同盟規約作成 永興下里에서

委員會經過

放送局設立進步

陽化婦女青年 第七回總會

巨欵을醵出하야 學校를新築하는 丹密面民의敎育熱

學年延長運動

益益有望한 永興曜陽學院

家禽品評과 鬪牛

順天青聯 發起準備會

元山市電話增設

兩罷業에 激勵文 光州理髮職工 委員會諸決議

溫大漁組臨總

擲柶大會

鐵原에서興行한 鳳鳴校救助劇 四日間大盛況

元山松江線 海電修理 南洋丸出動

鮎魚漁獲에 日本漁父活動 特別注意가必要

衡平創立 順天郡에서

私普新築 八千餘圓으로

德源青年同盟臨總

學藝展覽과 歌劇大會盛況

商旅旅券 海蔘威行 船長만必要

正直한少年

第一回委員會

晋州光林學校 昇格運動努力

學級增加로 戶稅도增加 義城學校費 評議會決案

自由勞働委員會

南寧蹴球大會

永興巡回素劇 五個處가盛況

海港에가는 青魚商客盛況

新興青年創立 長承浦에서

金海通俗大講演

碧潼의葛繩戰

讀者에게優待

塔洞少年演劇

地方人事

社告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Friday, Mar. 5th, 1926.

Chicago Astronomer Finds Evidence of New Universe; Mass of Celestial Bodies

I

CHICAGO, January 21-For years astronomers have speculated on whether various nebulous formations in the heavens belonged to this universe or were "island" universes of their own, limitless distances away.

Some of the white patches were known to be true nebulae composed of luminous gases, or star clusters that disolved before the telescope, but others puzzled, no telescope being strong enough to separate them into their component parts, some astronomers suggesting that they were universes of suns so far away that they appeared as one mass.

Evidence that another universe really exists is offered by Dr. Edwin Hubble in a study published today by the Unixersity of Chicago in the Astro-Physical Journal.

Dr. Hubble describes this universe as containing bright and dim stars and nebulae in heavens like our own, and offers photographs and definite measurements of the mass of celestial bodies that compose it.

700,000 Light Years Away

He found that this external galaxy, similar in many ways to our own, although entirely outside of the earth galactic system, is 700,000 light years away, an astronomical measurement which carries 17 figures when reduced to miles. According to its computation it is 4,000 light years across.

The galaxy,s general appearance was described as like that of the Magellanic clouds, a mass of nebulae like the Milky way in the skies of the southern hemisphere.

英文欄

市俄古天文學者의新宇宙發見 (一)

宗敎的道德이薄弱한 東大門婦人病院態度

問題의羅姐西를突然復職

당시동요한학생에게처벌까지하얏다

◇……看護員一同은又復動搖

긔보=시내 동대문 부인병원(東大門婦人病院) 간호원양성소 학생 홍선희(洪善喜)(二0)양이 간호원장인 미국인 라거서(羅姐西)의 질책을 밧고 분개하야 자살한것은 이미 상세히 보도하엿거니와 그후 병원에서는 책임상 그 간호원장에게 무긔휴직(無期休職)을 명하엿슴으로 그는 병원에서 나와 잇든 중 지난 이일오후세시반에 돌연히 병원 리사회(理事會)를 열고 『라거서』의 휴직을 해제식이기로 결의한후 한거름 나아가서 양인 간호원 등의 요구로 만국간호원회(萬國看護員會)의 규정(規程)이라는 핑계로 홍선희양이 분사하엿슬 때에 사흘동안 동맹휴학을 하엿든 학생등에게 …… 한 모양이라하야 학생측에서는 또 한대책을 강구하는중이라더라

勞働會의美擧

千四百名의 米國大觀光團

◇來八日부터仁川入港

전후세번에나누어서 이만흔의배로온다고

滯在中市內交通機關憂慮

世子殿下今日金谷 太皇帝御陵行啓

◇永徽園에도參拜하실터

사년만에황의어릉에 참배하시고자계하셔서

張氏의篤志

安岳小作爭議 苟且하게一段落

예연은소작권은절반식주고 바치든선물을도로내여노하

대원면양천(大遠面漢川坪) 소작쟁의는지난 이십륙일에 군당국에서 재차사음과 소작인대표를불러서 동이십팔일안으로 원만한해결을 하라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그후에디주의 대리인(代理人) 리상은(李相殷)이가 나려왓슴으로소작인들은 그에게 서사정을 한든중군당국에서 지난일일에 오라함으로 디주대리인과 사음과 소작인들이 일시에간즉 군수가디주 대리인을 …… 한소작인들을 원만히 해결하야 주라하며 지금도텽에서도 공문이왓는데 군에서 소작쟁의를잘 처리하라고하엿스니사음과상의하야 디주에게 욕을아니가게하라하매 사음과 디주대리인의말이 그러면원만한 해결을하야주겟다하고 나와서 이일에취소시켯든 소작인에게 절반식을도로주엇다는데 그중 소작인몃사람의말을 들은즉 그것을가지고는 농사를할수업서서 좀 더달라하야도 볼수업슴으로 그러면선사하엿든 물건갑을 내다하야바닷는데 소작쟁의는 이것으로단락을 지엇다더라(안악)

電燈料를返還하고 停電식히는京電橫暴

켜지안흔날것까지달라고 돌연히송뎐을뎡지하엿다

시내간동(諫洞)팔십이번디홍사필(洪思弼)씨의집에서는 뎐등을켜오든터인데 얼마전에 뎐등료금이 체납이되엿는바 집금원이 ……

◇……봄비를먹음은강안수림 (작일마포에서)……◇

申福順에게 一年求刑

판결언도일은 오는구일이다

女子一名自殺

남편에게매맛고

警察이干涉開始 大邱高普盟休生

희생자는벌서열다섯명

路上에夫婦活劇

處女火傷 생명이위독하다

충남청양군 청양면군량리(忠南靑陽郡靑陽面軍糧里)김긔만(金基萬)의 장녀(長女)임숙(壬淑)(一六)은 점심을짓다가 옷에불이 부터 미처수습치못하고 마당에 나와데굴데굴 궁굴때에 마츰그 ……

松坡公普學藝會

…… 은 륙백여명에달하엿스며 …… 에도동강당에서 개최 하엿는데 일반학부형과 래빈은 인산인해를일우엇는데 …… 학생의창가와 연쓰등이 잇섯고 교육에대한극과 온돌개량의 선전극등오십여종이잇서대성황을 일우후폐회하엿다더라(송파)

書籍注文業者가 멀정한詐欺漢

돈을밧고책은안준다

경성부관훈동 십팔번디 광제서림(京城府寬勳洞一八番地廣濟書林)에잇는 송만섭(宋萬燮)은 작년십일월 이십팔일경에 전남 라주디방(全南羅州地方)에 와서 선금(先金)을밧고 서적등을 주문바더갓는데 그후에 돈도보내주지아니하고 서적등도내려보내지 아니한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본래라주군 라주면박정리라한석(羅州郡羅州面朴丁里羅漢錫)씨는 원래광제서림에서서적등을만히주문하여온결과 광제서림에서 왓다하며그권에도 송만섭이란 자가광제서림에잇는 사람임을 알음으로그것을 신용하고 서적대금십 ……

電車에負傷한老人 治療中畢竟死亡

늙은부부가둘이살다가 홀로된미망인의하소연

電氣會社의沒人情을呼寃

지난이월이십륙일 오후 한시반경에 평양부경제리(鏡齊里) 사십팔번디에사는 주학린(朱學麟)(七0)씨는 당디창동(倉洞)례배당압 뎐차선로를 건느다가 평원교(平元橋) 뎡류장을 떠나 평양역으로 진행하는 뎐차에 치어외인편면부(面部)에 중상을당하고곳 그근처에잇는해동의원에입원하야응급수당을밧고사택에도라가서 치료하다가 지난삼일오후 한시에 다시 돌아오지못하는 황천객이 되엿다는데 미망인(未亡人)박씨(朴氏)(六0)는 말하되 가족이라고는아모도업슴니다 먹을것이 잇던지업던지 입을것이잇고업슴을 물론하고 서로서로해로하는 것을 락으로만알고 지내여오다가 이가티뜻밧게변을당하고보니 참으로가슴이 막히여 말이나아가지 안슴니다 영감이 뎐차에치여서 이가티여러날동안을 자리에 잇섯스나 사람을죽게한뎐차과(電車課)에서는 치료비한푼을 아니주고잇스니 나이만흔 사람이되여 세상일을알수는 업슴니다마는 무슨법률이 그러한지 알수가 업다고하며 영감은 이러케 세상을떠낫스나 밥지을쌀한홉

나무한뭇

이업스니엇더케하여야 할는지오하며 비인방에 홀로안저 방금세상을 떠난영감의시톄를안고 두줄기 눈물을시톄우흐로 떠러치며 뎐차가지나가는소리만 들어도 몸서리가침니다하며 돈이라고는 한푼이업스니 장례를 엇더케지낼는지 령감이 이미이가티 세상을떠낫스니 치료비는그만두고 장례비라도주엇스면 조켓슴니다 하더라(평양)

寒食前杏花村에 可憐一片杏花落

만지장서의유언을써노코 독약을먹고무참히죽엇다

지난이월이십팔일오전아홉시경 김해군김해면북내동(金海郡金海面北內洞)에잇는침향정(沈香亭)이라는 료리집 …… 이라는 꼿다운 이십세생 …… 그는본래 울산군강동면신현리 (蔚山郡江東面新峴里) 박대붕(朴大鵬)의딸 박행화(朴杏花)(二0)로서 일즉이출가하야 살어오든중

중간에

무슨사고로 우연히 집을떠나게되고 부산(釜山)에다달으자누구의소개로 엇던음식뎜 영업을하는집에서장부노릇을하다가간악한주인의수단에 빠져서별로신통할 것업시 엇지엇지하다가 삼백팔십원이란돈을주인에게 빗을지게되엿든바 마츰전긔 침향정의주인이되는김모(金某)가창기(娼妓)를사러 부산에왓다가 전긔행화의

어엽분

자태를보고주인과 교섭하야 전긔채금삼백팔십원을물어주고 사서다려다가 전긔침향정이란 료정에서 이때까지 벗벗해를두고 창기노릇을 하여오든중 작년여름에김해군 김해면부원동(金海郡金海面府院洞)에사는 김봉룡(金鳳龍)(二八)이라는청년이 우연히 놀러그곳에 왓다가 행화와한번맛난후 그청년은 집에돌아가서도 행화의요염(妖艶)한

자태가

눈에암암하야 자나깨나 아모리하여도행화를못보고는살수가업슴으로그는행화의 환심(歡心)을사고저하야자조다니며 가진수단을다한결과두사람의애정은면히생기게되여이번에는행화가김봉룡을잇고는또한살수가업슬만치 김봉룡이 들게되엿섯다 그러나 전긔김봉룡은 엄부형(嚴父兄)시하에 절하야가서도 넉넉지못함으로 행화를 락적(落籍)코저하나

경제가

허락지안코그대로두고보라하나 서로떨어저서는잠시를 살수가업슴으로 나중에는 서로정사를 언약하게되며혈서를 보내고 바든것도 두번이아니엇스나 아모리 정으로죽는정사라할지라도 생목숨을 끈키는그러케용이한것이 안임으로 몃번을망사리다가 긔어히그것을 결행치못하엿든바 심이오즉

사랑만

을위하야 매치고 매치인행화는 평생을서로그리고만 살터이면 차라리정다운죽엄을취하야 버리고 마는것이낫겟나하야 팔둑의살뎜을 두어곳이나 베여피를내여 가지고혈서로 만지장서를써서 애인에게보내고 죽을것을 서약한후취침하는 약을사서 주인과 동무창기들의 눈을속이고 몰내먹은후에 평소에도 서로사정을 통하는동모한아를불러다가자긔의

속사정

을 일일히말한후 나는지금독약을 먹엇스니 명경각에 잇다고말한후죽시고 민함으로 주인에게 긔별하야 공의(公醫)를 불러다가응급수당을하엿스나 때는이미 느졋슴으로 그는드듸여 절명되고말엇는데 그는죽을때에 애인에게유서(遺書)로 혈서(血書)를 또써서노코 가티 정사하자하엿스나 긔회가허락지안하야 혼자먼저죽으니

참으로

나를 사랑하거든 나의뒤를 따라오시면 귀신이라도반갑고고맙겟다는의미로써서노핫다는데 그의애인 김복룡은지금경찰서에인치되여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김해일긔자)

遝至하는同情에 運命이열려가는三男妹

갓난아이는유모대어기르며 큰아이는수양자와민며느리

경긔도 안셩군읍내면장긔리(安城郡邑內面場基里) 사십륙번디에 잇는박대근(朴大根)의 삼남매의비참(悲慘)한 사실이 본보에상세히 보도됨을 따라 각유지제씨(有志諸氏)로 부터동정금이답지한다함은 이미그의 씨명과 금액(金額)을 상세히 보도한바 어니와 그후로도 동정금이 연일(連日)답지하며 또는당디유지의 구호(救護)로 박순만 삼남매의 전도(前途)가유망(有望)할뜻하다는데 그의내용인즉 본사안셩지국(本社安城支局)의주선으로 어린아이는 지난이십오일 부터유모(乳母)를 대여기르는 중인데유모는 동군금광면오산리(同郡金光面梧山里) 일백사십번디 남정권(南廷典)(四0)의 처 안씨(安氏)(三三)요그의급료(給料)는 매월(每月)사원식으로 정한바 이에대하야는 각유지의 동정금이 약열달동안은 지배(支配)할뜻하다하며 박순만은 그이웃집 리응서(李應瑞)씨가 수양자(收養子)로 …… 박순만의누이동생순제(順濟)는장내 며느리감으로 다려가라고 하는사람이 만헛스나 본사안셩지국에서 묘사한바 당자간녀령관계(當者間年齡關係)라든지 또는 여러가지로 불합리(不合理)한 점이 만흠으로 지국장윤진영(尹珍榮)씨가지난이십오일 에 자긔집으로다려갓슴으로 전긔 박순만삼남매의 전도는유망할뜻하다하며 요전발표한이후에 동정금을보낸인사의씨명과금액은아래와갓다더라(안셩)

一金十圓 慶北榮州郡邑內九番地(本籍忠南公州郡本町二八二番地)韓德履▲白米二斗 牛乳代三圓 京城府敦水洞四二番地(無記名)▲二圓 振威郡西炭面長 梟里林承國▲一圓 湖西銀行安城支店內 李澤▲三圓 江原道橫城郡書院面六里 宋鉉玉 累計金三十九圓二十錢 白米二斗

◇인도청년을환영하는광경◇ (사리원에서)

舒川서도同情

본사지국주선과 당디인사의동정

불상한아이박순만(朴順萬)삼남매에대하야 본사서천지국(本社舒川支局)에서는 그를구호코저 여러가지로 노력한결과 동정금이만히들어온다는데 현재 동정금한인사의금액은아래와갓다더라

朝鮮日報舒川支局 蔡聖完 一圓 忠南自働車運轉手 金叉吉 一圓 徐枝聖 具泰元 各五十錢 羅鍾轍 金永昌 權明植 李容馥 各三十錢 趙德三 安鍾國 安仁鎬 金壽萬 金東洙 羅宗鎬 尹國 宋榮謨 趙昶九 趙聖三 李讚用 魏永玉 劉秀宗 各二十錢 羅光鎬母親 金日彰 池龍相 金澤明 朴薛仁 各十錢 羅鍾純 十六錢 姜通順 十五錢 計七圓六十一錢

去益橫暴한 京電集金員

돈을주어도밧지도안코 뎐등을떼어가지고갓다

市民의非難이더욱놉다

사십만시민을 무시하고 가진횡포(橫暴)를자행(恣行)하다 가지금은 전시민의 원부(怨府)를짓고 전조선뎐긔계에일대문데를 야긔케한 경성뎐긔주식회사(京城電氣會社)는 시민의여론이 비등함을따라 조금도개준(改悛)의빗은업고 한층더심해져서 인케는 뎐등료금 집금원(集金員)까지행동이 뎜뎜더횡포하여지는 경향인바 이제그례를들건대 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 일뎡목관동의원(關東醫院)장리병텬(李炳天)씨는 그의자택이 전긔병원에서 두 어집건너가서 잇는

부인이혼자

잇는터인바 중그의자택에 는리병텬씨의 뎐등료금을 바드러 집금원이 두어번이나왓다가 간것을그의부인이 사일아츰에남편되는리병텬씨에게말하엿섯는데 마츰리씨는가진돈이업슴으로집금원이 오거든병원으로보내달라하엿든바그날오후에 집금원이 또다시와서뎐등료를내라 함으로그부인이 …… 병원이잇스니 거긔가서 말하면 주리라고 하엿든바 전긔집금원은 가진욕설과 별별소리를다 함으로 그부인은 분함을참다못하야 리웃집에가서 돈을변통하여다가주엇스 나그집금원은 구지밧지안코 긔어히 뎐등을떼여가지고갓다하야 그말을들은 일반은더욱 경뎐에대한 비난이놉하진다더라

姜正熙氏의 十年勤續紀念

성대히거행할터

동대문녀자보통학교(東大門女普)교무주임 강정희(姜正熙)씨는 십년이라는긴세월을 한결가티그학교에 근속한바 학교당국과 학부형의주최로 륙일오후두시에 동교대강당에서 동씨십년근속표창식을 성대히 거행하며긔념품도증정한다더라

五日京城着 布施氏

사일대구를떠낫다

일본동경(東京)포시진치(布施辰治)씨는발서 부터조선에건너올예뎡이엇든바박렬(朴烈)사건의변호로인하야 예뎡대로못하고 사일대구(大邱)에 도착하야 그곳에서 주최하는강연회가 불허가되엿슴으로 각공장의 로동상태등을 시찰한후 박차도경성을향하야출발하엿더라(대구뎐보)

市街美를더하든 鳥致院仲橋運命

시민들은아깝게여긴다

충남연기군 조치원(燕岐郡鳥致院)시가 중앙에잇는중교(仲橋)라하면 본뎡일뎡목과 중뎡(仲町)과교차된 네거리에 잇는못(池)우에노흔다리(橋)로길이가십오간이상이나되고못의면적도삼천평이상이나 되야서 조치원의자연미(自然美)가될뿐더러 날이따뜻한봄(春)으로부터가을(秋)까지못가에서고기낙(釣)는것도 역시시가중에 한경치이오 여름더울때면

시민들의

커다란피서디임은 충청남북도에서도 일홈이놉핫슬뿐아니라 조치원시가에 화재가잇슬때이면소방대의 용수지(用水池)도 업지못할 다리와못인데 요사이시구의 개뎡으로 전긔와가튼 자연의미인 못을매이고 다리도텰폐하기로 결뎡되야 수일전부터 다리를뜨뜨둠으로 시민들은 중교의운명이 지금으로부터 마치는것을 애석히녀이는동시에

소방대의

용수지가업서지게되는것을 보고 일후에화재가잇스면 불쓰기가 곤난하겟다고심려하는중이라더라(조치원)

交通까지遮斷

일반의비난이만타

중교(仲橋)를 텰폐함에 대하야 조치원시민들이 애석히 녀인다함은 별항에보도한바어니와 교통이 복잡한큰길임을 불구하고 도로의 가설(假設)도 업시다만 경찰서의 제차통행금지(諸車通行禁止)라는패만길가에다려노코 보행까지금지하야 여러사람들이 갈곳을 아지못하고또더내는다리우로가다가청부업자에게 봉변을당하고가는사람이부지기수임으로일반의당국을비난하는소리가만흔데당국에서도교통할도로를임시로가설하고현재의공사를진행할필요가잇슬는지시민들은 당국의태도를 관망하는중이라더라(조치원)

少婦自殺未遂

부부가언쟁하고

마산시가는색인대회(索引大會)로인하야 주야를물론하고한층 더번화하든중에 지난이월십칠일 오전세시경은되야 사람은 다잠이들고 오즉중텬에밝은달이고요히 빗최여잇는데 원뎡(元町)매립디해안(埋立地海岸)에는 치마를 얼굴에 무릅쓰고 물에싸저죽으려하는 이십오륙세되는 청춘녀자한사람이 잇섯다 그때에 김응두(金膺斗)김경순(金敬淳)두사람은 색인대회서부(西部)출장치(藏置)한곳에서 수직(守直)을 하다가 깁흔밤에 어떠한 녀자가해안으로 급히 가는것을 보고 이상하야 뒤를따라갓든바 그러한 광경이 잇슴으로 어넘으로 급히 구하엿슴으로 다행히물에는빠지지아니하얏슴 으로그의집을차저서다려다맛기엿다는데 그원인을 대개듯건대 그는마산 부상남동 정연규(上南洞鄭淵奎)삼녀정막직(二五)이라는 녀자로일즉이부내부뎡권태영(府內富町權泰永)(二八)과 결혼하야 이래두사람의 애정은 깁헛스나 한갓권태영의 형권대석(權兌錫)의집에의탁하야 지내게됨으로 자유가업고 딸하서 생활도넉넉지 못하든 곤난한차에 그의남편권태영이가조선에서는살수가업슨즉차라리일본이나가서직업을구하겟다하며려비가업스니의복(衣服)을뎐당하여서 려비를 작만하야가지고간다함으로 그말로 서로언쟁이 일어난바 만흔구타를당하고 그와가티 물에빠져죽으려한것이라더라(마산)

養育費를밧고 乳兒를遺棄

범인은대포취됴

인천부룡리(龍里)일백칠십오번디김익수(金益洙)의집에는 삼일오후일곱시경에 난지불과칠개월쯤되는일홈정숙(貞淑)이란계집아이를누가문간에다 가드려밀고달어낫슴으로그집주인되는채(蔡)씨는소관파출소에알게하엿슴으로 곳범인을체포하고 방금인천경찰서에서취됴중이라는데 이에 대한내막을드른바에 의하면 원래룡리김인숙 음식뎜에서술팔든 하산옥(河山玉)(二三)이 가작년칠월에 전긔정숙을 배고사정에의하야 화정송학루(松鶴樓)리창호(李昌浩)에게창기(娼妓)로 사백 오십원에 몸이팔리게 되엿슴으로 룡리 일백칠십오번디박긔만(朴基萬)(五三)에게 매월륙원(六圓)식 양육비를주기로하고 먼저양육비 오십원이나주어서 길러달라고 위탁하엿든바 전긔 박긔만은어떠한생각이잇섯든지 남의 눈을속여가지고룡리김익수의집에다가 그와가티 버리다가 발각된것이라더라(인천)

九面長의盟辭

서무과장의말이 불온한까닭으로

경북선산군(慶北善山郡)에서는 아홉면장이총사직을하엿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군서무과장(郡庶務課長)일인모가항상언행이조치못하다는비평이만튼바 지난달십구일에 그군텽(郡廳)안에서 면장회의를 개최하엿는데 회의석에서도 전긔서무과장은 평시와가티 면장을대하야불온한말을함으로 면장측에서는 분개함을 마지못하야 무리한말을고치라고 권유하엿스나 서무과장은 청이불문(聽而不聞)할뿐아니라 듯기가실흐면 면장을 사직하라고하엿스매 분개중에잇는 아홉면장이 동맹사직서를 경북도당국(慶北道當局)에 뎨출하엿다는데 구미면장박소룡(龜尾面長朴韶鏞)과 고아면장(高牙面長)김세용(金世容)량군만은 아즉사직을안코 시무중이라더라(금천)

少女燒死

부억에서놀다가

황해도 옹진군 마산면단천리단천동오승제(黃海道甕津郡馬山面丹川洞吳承濟)의 동재딸오옥선(吳玉仙)(四)은 지난 이월이십칠일오후두시경에자긔어머니가 아궁에 불을때이다가몰래간사이에 부억에서 놀다가옷에불이당기여 무참히 되여죽엇다는데 그의부모는눈물을금치못한다더라(해주)

휘파람

▲대구에는아우가형을고소하고 형이 아우를때려맛고소송한 사건이잇다 그런데원인은칠만여원의약속수형문데이라고한다 ▲그들에게도돈이업섯더면이따위짓은아니하얏슬것이다 칠천이나 칠십원가량돈이엇더면형뎨가맛고소까지는못하엿슬것이다▲칠만원이라는거액이기때문에 형은아우를 칠만원에비하야 가볍게생각한것이오 아우는형을 칠만원보다 가볍게생각한것으로볼수밧게업다 ▲아!무섭다그들의눈에비치는돈과형뎨의비교!